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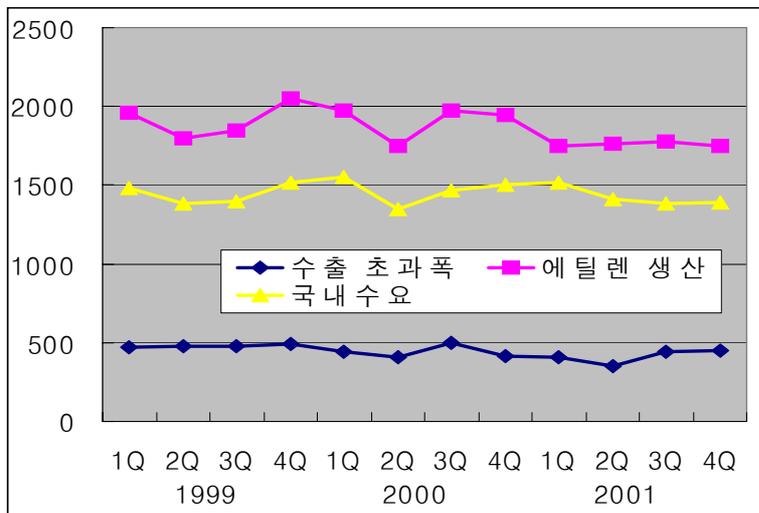
에틸렌, 획기적 구조조정 필요하다!

일본, 국내수요 장기침체로 수출이 사활 ... 가동률도 90% 초반

일본 석유화학산업은 국내수요 정체와 수출경쟁력의 상대적 하락이 진전되고 있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에틸렌 생산량은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760만톤대로 피크를 기록한 이래 2001년 740만톤, 2002년 715만톤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에틸렌 수급동향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03년 에틸렌 수요는 내수가 전년대비 1.2% 증가한 605만톤이지만 수출입 밸런스에서 수출초과폭이 14% 감소한 102만톤을 기록해 필요량은 1.3% 감소한 708만톤으로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에틸렌의 실질 생산능력은 정기보수 손실감소와 증설에 따라 770만톤대를 기록해 30만톤 정도 증가함으로써 60만톤 감산이 불가피했다.

2002년 에틸렌 수요는 내수가 상반기 침체를 반영해 0.9% 감소한 598만톤, 수출초과폭은 2001년 수준인 118만8000톤, 수출필요량은 0.8% 감소한 717만톤을 기록했고 생산량은 2.9% 감소한 715만톤으로 3년 연속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2003년 에틸렌 생산은 708만톤으로 4년 연속 전년실적을 밑돌았고 에틸렌 크래커의 실질가동률은 92% 전후로 2002년 하반기에 비해 약 5%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학저널 2004/06/28>